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어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집사 장립·권사 취임식 거행

3월 31일(화) 저녁 7시 본당서
집사 고시와 권사 면접은 28일 오후 4시부터

제7대 집사 장립 및 제35대 권사 취임식이 오는 3월 31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개최된다.

지난해(91년) 9월 8일 공동의회서 피택된 집사 후보 6명, 권사 49명은 본 교회 당회의 위촉을 받아 성경연구원에서 6개월 코스의 교육을 완료하고, 28일 오후 4시에 집사는 고시를, 권사는 면접을 거쳐 장립 및 취임한다.

이들이 장립 및 취임과 더불어 몸된 중헌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도록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피택 집사와 권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피택집사

오석부, 오인근, 이장하, 박덕양, 이계인, 장주석

▲피택권사

권영옥, 구자남, 김영순, 김영애, 김복련, 김분식, 김인숙, 김현숙, 박복동, 박순옥, 박옥순, 박정구, 백숙자, 백영희, 변경희, 서화자, 석정자, 손홍숙, 송태영, 송희연, 신원택, 신정순, 심의숙, 안은희,

안정희, 안 정, 양선자, 이경효, 이득해, 이석정, 이영숙, 이용옥, 오춘실, 오화자, 유호순, 윤옥자, 윤정미, 윤희자, 장귀녀, 장춘매, 정경희, 정숙영, 정정자, 조향숙, 조혜순, 최이수, 최정순, 최태옥, 홍순임, 황순정

실업인선교회

30일에 특강 개최

실업인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가 오는 3월 30일(월) 저녁 6시 30분 갈릴리홀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업인을 위한 채권 관리 및 자금 조달"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 특강은 현재 한국기업법률연구소 조규환 소장이 강의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며, 특히 실업인선교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성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심정으로 제출하여, 이 일이 1992년도 배가운동의 놀라운 진군이 되도록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배가운동 전개

29일에 전교인 전도 대상 태신자 작성기로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중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먼저 교회가 배가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교인 배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회는 배가운동본부를 조직하고(조직 명단 4면에 게재), 구체적인 운동의 진행을

위하여 오는 3월 25일(수) 수요 2부 예배 후에 중헌기독교원에서 지도 목사 협의회를 갖는다.

이 배가운동은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교인 배가운동인 까닭에 모든 중헌인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9일(주일) 낮예배시에(고등부 이하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예배시에) 온 교인이 전도대상자(태신자)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작성한 태신자 명단을 봉헌하는

중헌프리즘

◎...교회에 성경 공부 붐이 일고 있다.

중헌성경연구원이 집계한 주간성경공부 등록 인원이 약 700명에 이르고, 교인들 편의에 따라 선택된 강좌도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9개 과목이나 된다.

모두들 훌륭한 교역자들의 명강의가 진행되는 탓인지 출석율도 매우 좋다는 보고가 있다.

신자가 교회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있게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과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자라야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배워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자들이 양육되어 전도하고 봉사하는 헌신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 영적으로 성숙됨은 물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회가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마련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한다.

◎...교회당 주변이 좀 넓어보인다.

쓸데없는 구조물이 철거되어 본당 앞면이 한 눈에 보이고, 주일 예배시 차량 주차가 원활해지고 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상징물의 건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의 새로움의 변화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안목이 새로워져야 하겠다.

◎...강남 지역 교계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271개 교회 교역자 및 장로, 안수집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하여 강남복음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갈보리장로교회 박조준 목사는 "새벽을 깨웁시다"라는 설교를 통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은 본 교회 김영삼장로가 친히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카메라 초점



▲지난 3월 17일 서부전선 통일종교회에서 있었던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524명의 성도가 참가하였다.



▲군중후보생수련회가 3월 19일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청지기훈련 일정 및 주강사 변경

오는 4월 2일(목)부터 실시되는 청지기훈련의 일정과 주강사가 변경되었다.

청지기 훈련은 4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세 교구씩 중헌기도원에서 실시하여 모두 여섯 주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이 훈련에서는 이요한 목사(현재 한국세계선교연구소 소장)가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훈련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 정

날	차	교 구	날	차	교 구
4월 2일, 3일	1, 2, 3	4월 9일, 10일	4, 5, 6		
4월 16일, 17일	7, 8, 9	4월 23일, 24일	10, 11, 12		
4월 30일, 5월 1일	13, 14	5월 7일, 8일	16, 17, 18, 1차~5차까지		참석지 않은 성도

인도네시아 선교부 방문자 모집

중헌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남아시아권(위원 이병학 장로)에서는 서만수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방문하고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인도로 집회도 개최하는 바, 이에 방문 참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기 간: 4월 13일(월)~4월 18일(토)
- 참가자격: 설교에 뜻이 있는 중헌교회 성도
- 참가경비: 89만원(탐방 전 일정 항공료, 숙박비 포함)
- 설명모임: 3월 22일(주일) 오후 4시 선교관 406호
- 연 락 처: 간사 안동현 집사(전화 298-222)



충현강단

신성중 목사

성부께 합당한 생활 2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5~21)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위 사람들을 울리고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로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서 죽겠다고 하면서 말 끝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환한 대낮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을 잃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주의하며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엡5:15)

간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죄악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례의 원형을 통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찾아가면서 술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을 격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엡5:15)

원문에서는 ‘행한다’는 것이 ‘걷는다’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기불로 인하

여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하는 것은 시간을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고, 슬프고, 즐겁게 지내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가고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를 읽어보면 왕들의 생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왕들의 다른 업적은 모두 생략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 즉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상을 섬겼는가에 대한 것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3.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5:17)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릇처럼 생겨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비결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해낸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려면 수원지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 파이프가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19, 20)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서 삶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표준인 것입니다.

4.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만을 받아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

5.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5:21)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결정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은 이기전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전수된 순교적인, 보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에 물건을 사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미련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수 신앙을 버리면 중헌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즈음처럼 이단이 많은 때도 드물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문, 잡지에서까지 버젓이 난리를 피운다. 숨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일까? 게다가 사이비까지 합치면 한국은 가히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에 이단들이 진출하여 민족 복음화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북한에는 종교 인구가 약 3만5천명인데 그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1만명쯤 된다고 한다(92년 1월 24일자 동아일보). 그런데 통일교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문선명이 김일성을 방문하고 여러가지 사업 계획을 협의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저들의 포교 방법이라는 데 있다. 옛 소련이 종교에 자유를 주자 물론 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등이 벌써 전력을 다해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사이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1. 이단이란 무엇인가?

한문의 뜻을 보면 이단(異端)이란,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한문식 풀이로서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위험한 정의이다. 왜냐하면 이단은 시작도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에 같아 보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나는 이단이다” 하고

>충현논단<

성경적 견지에서 본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

신성종 목사

본고는 지난 3월 12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이사장 정진경 목사, 원장 이종성 목사)이 주관하여 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학술공개강연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발표한 내용을 두 차례로 나누어 전제한다.(편집자주)

간판을 내걸지 않고, “나는 양이오” 하고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것이다.

이단에 대해 윌터 마틴은 “어떤 그릇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단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고 한다(참고 요21:10, 11; 갈5:20; 딤후3:10). 원문에 보면 하이레시스(haeresis)란 말인데 그 뜻은 분리, 당파, 선택된 의견, 종파, 부조화, 불화, 논쟁, 이단 등이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란 단어의 사용을 보면 웹스터의 사전에는 “이단이란 비정통, 혹은 사이비로 간주된 신조를 붙잡고 있는 적은 무리의 종교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레위기 22장 18절과 21절을 보면 그들이 택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 즉 낙헌제를 이단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선택된 의견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앞에서 인용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선택된 의견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멸망케 할 의견들이라고 하였다.

셋째, 어떤 의견을 고집하는 분파나 분당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행5:17; 롬18:17; 고전11:10; 갈5:20).

따라서 성경에서 이단이란 특정주의나 교리를 공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깊은 성경 공부 없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받은 3대 시험의 경우를 보아도 이단의 괴수인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단이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갈1:7).

그러나 사이비는 좀 다르다. 중간사 시대를 중심으로 위경이라는 것들이 많이 쓰여졌다. 위경은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으로 쓴 책들인데, 그러나 사실은 위조 지폐처럼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사상이 기록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구별되는 것이 옳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단이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단순히 틀린 교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교리를 위해 정통적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다. 사이비는 기성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이단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세속적 계시를 주장하는 경우이다(계 22:18, 19).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다함을 얻는다는(롬1:7) 교리를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경우가 있다.

셋째로,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으로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골3:8~10).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은 악하므로 묶어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도 근원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로서 육은 악하니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사상이었다.

다섯째, 가현설이었다. 이들도 신학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육은 악하니 어떻게 주님께서 육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인성)지 그리스도(신성)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가현설을 비판하였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2. 이단이 생겨지는 배경

탁명환 소장은 그의 “기독교 이단의 연구”란 책에서 일곱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는, 이단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마24:5)이며, 둘째는 기성 교회의 부패이고, 셋째는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생겨지며(최근에 감리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선회의 다원주의와 홍정수의 포스트모더니즘), 넷째는 교회의 폐쇄성과 율법주의 때문이고, 다섯째는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사회적, 정서적 충격을 주지 못함)이며, 여섯째는 사회적 위기 의식 때문이고, 일곱째는 성경 해석의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계속)

장로칼럼

기독교인의 사랑 실천



김영삼 장로
(세계선교위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까닭에 봉사하는 것이 신앙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금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 사회를 위한 봉사, 국가를 위한 봉사, 민족을 위한 봉사가 곧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인 동시에 사회 참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때 목숨을 걸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사랑의 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위에 더한 사랑이 없나니”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욕에 갇힌 자를 돌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 빈사 상태에 있는 행인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6·25 사변이 났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계기독교봉사회를 통한 구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전쟁 미망인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고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돌보았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군인들을 돌보는 일도 일했습니다. 국가가 미처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교회가 자진하여 이 일을 맡고 나섰습니다.

야전 병원을 찾아다니며 부상 용사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빨래를 빨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를 바라가지 않았습니

다.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야전 병원에 스스로 찾아가서 장병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 군에 편입되어 군목이라는 직제가 요즘은 생겨났지만 초창기에는 봉사를 자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군번도 없이 전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종 제도가 마련되어 모든 종교가 다 참여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희생적인 자진 봉사 행동의 결실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언제나 찾아나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쁨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섰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의 영역은 한없이 폭이 넓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애국심이나 기독교인의 애족 정신이 곧 선교의 철학이고 신학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위에 더한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사회 참여입니다.

다음호는 오진국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엄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관대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지 눈물겨웁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세계체육인선교회(이사장 김창인 목사, 회장 이광훈 목사)가 주관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회 할렐루야 마닐라선교대회에 참가하여 새벽기도회와 세미나와 한인연합교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 포키스를 맞추라. 그리하여 영혼을 구하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심장은 쇼크를 받아 두근거렸고 몸은 달아올랐으며 눈의 동공을 크게 떠서 감진하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해방 이후 25년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왜 그동안 내 영의 눈은 뜨지 못했는가, 그저 교회당의 틀만 밟고 다녔다는 말인가. 깊은 잠에 빠져 깬대기만 왔다갔다했던 지난날의 나를 생각하니 오싹

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의 “협력 선교” 세미나 강의 중 강한 어조의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라는 외침은 내 심령에 산을 립이 되어 매아리쳐왔습니다. 그 동안 동남아 선교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 자신의 잘못이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독자의 글•

아 이 엄청난 은총이여! —필리핀 선교대회를 다녀와서—

최세영 집사(제6교구)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눈물의 회개를 하고, 이런 변화가 일순간의 감상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내 발바닥으로 직접 누비고 다니는 단기 선교사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자고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동안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보상이라도 받을 작정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으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마할라카니 예수수”(영어하실 수 있습니까?), “말까미말라미 사마랴보”(예수님

그런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티폴로에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밤 11시가 넘어서 먹는 저녁 식사는 그 어떤 것에 비길 수 없는 진수성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맛 같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내 영혼의 눈을 뜨는

게기가 되었던 1월 24일 저녁, 교민 초청 심령 부흥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관석 목사님의 “복음에 빛진 자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정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 능력의 핵이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전하시는 말씀 중에 탄생 복음, 예수님의 죽음,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역설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강렬하게 일어났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능력의 핵이 폭발하여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광채가 빛나고 우리들은 빛의 사자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된다.”는 말씀은 나의 영혼을 번득이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빛진 자의 자세로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강조하실 때는 강렬한 충격과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몸 전체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였고, 감사의 눈물을 한 없이 흘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저상 명령을 지켜 내 발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길, 이 거룩한 영광의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금번 마닐라 선교에 부름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거듭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의료선교부에 감사패 전달 의료 기구도 함께

우리 교회 세계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89년 파송되어 사역해 온 파키스탄 의료선교부에 대한 지원을 계약 만료로 종결하게 된다.

이들은 사역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설립하는 등 의료 선교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하여 왔다.

이에 오는 3월 29일(주일) 저녁 7시 찬양예배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2년 4개월간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사역해 온 파키스탄 의료선교부는 우리 교회에 감사

패를 전달하고, 우리 교회는 파키스탄 의료선교부에 감사패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1천만원 상당의 의료 기구를 전달키로 하였다.

파키스탄 의료선교부가 하나님 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헌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제18교구 신설

교회는 기존의 제18교구를 국제교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새가족들을 전달, 관리하는 제18교구를 신설하였다.

이에 당회는 제18교구의 교구장에 강행 장로를, 지도에 협행한 목사들을 각각 임명하였다.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장에 송기홍 장로



우리 교회 송기홍 장로(초등3부 부장, 제1교육위원장)가 수도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 산하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김창인 원로목사 군위교회 부흥회

김창인 원로목사는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군위교회(정철호 목사 시무, 경북 군위군 소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

교회인사

장경철 목사 제1교육위원회 지도로 임명
김희수 목사 제13교구 지도로 임명
장병기 목사 금현교회에서 재현교회로 이동
김후용 강도사 교양중현교회 지도에서 사임

다. 원로목사의 사역과 건강을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윤삼중 전도사 성경연구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부지사로 임명
김정태 집사 제4교구 간사, 예배위원에서 사면
유상태 집사 제4교구 간사로 임명

사랑의 집 명칭 '봉사관'으로

교회는 지난 3월 18일(수) 임시당회에서 현재 건축 중인 사랑의 집의 명칭을 “봉사관”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감사의 예물

다모아문구대리점을 경영하는 제2교구 김정래 집사가 공책을 기증해왔다. 교회는 이 공책을 초등3부~6부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구제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배가운 동 본 부 조직

•교 문: 김창인 원로목사 •본 부 장: 신성중 목사 •추진위원장: 윤명식 장로

분과명	분과장	지도	장	교역자
기획	정하우	이조웅	김차생, 하대선, 남선우, 서동석, 이종국, 분과활동원	최인근, 송태근, 윤용규, 김성훈, 김해규, 김광수, 홍광현(새계)
교육양육	최상규	김해규	조선근, 오태희, 장순용, 정윤석, 최무길, 오광현, 장은원, 송기홍	김용기, 김희수
교구·동원	손동문	최현근	18개 교구장 전원	18개 교구 지도 전원 예찬도사 전원
행정년양	이훈	송태근	노광현, 이병학, 최상현, 윤광일, 김권재, 이창호, 차선두, 윤상철, 이종택	김현근, 이병학, 심길웅
방사	박치현	김성훈	김희철, 박연애, 세일영, 최대원, 정광호, 문홍규, 김경철, 김재관	전포근, 김태준
홍보	손경수	김광수	김영삼, 박승준, 임필성, 강모용, 조인혜, 박영식, 윤인현, 유계원	김양훈, 김광국, 조동원
진행	김은호	윤용규	이태규, 오진국, 박관영, 김종구, 마성락, 김광진, 김재명	김학진, 이홍성, 장경철
재정	김영개		송환장, 김광남, 김영길, 안익태	

부목사 청빙

교회는 지난 3월 18일(수)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임성환 목사와 한용관 목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키로 결의하였다.

•임성환 목사

고신대, 총신신대원 졸업
90년 안수

•한용관 목사

총신대, 총신신대원 졸업
91년 안수



임성환 목사



한용관 목사